**Goldman Sachs – Equity Research**

포지션: Full-time (Business Analyst 3-Year Program)

지원방법: 제가 모신 UBS 상무님 (Equity Sales)의 추천으로. 헬스장에서 운동 끝내고 휴대폰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2번이랑 문자가! 연락 달라는 문자보고 연락 드리니 저보고 리서치 자리 관심 있냐고 하셔서 얼른 집에 가서 제 이력서 보내 드리니 골드만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하심.

회사위치: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21층

도쿄 HR에서 연락이 오더군요. 그 후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면접 날짜 잡았습니다. 1차 면접 전에 HR분과 한 30분 전화 면접을 봤어요. 저에 대해 좀 알고 싶으시다면서 Fit & Competency 위주로 봤습니다. 서울지점의 채용은 도쿄지점에서 하는 것 같더군요. 이후 채용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도쿄지점과 했습니다.

**First-Round**

30분짜리 면접 2번 보고 마지막엔 Valuation Test(필기시험)을 봤습니다.

1. **면접관: Equity Research 상무 (30분 / 영어)**\

골드만 삭스 도쿄지점에 계신 분이랑 화상으로 봤는데, 미국인 이셨고 연세가 좀 있으신 듯 했어요. 제가 Mr. ~라고 부르니 그냥 편하게 자기 first name 부르라고 하시던.. 제가 지원한 포지션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제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 질문하시고 해서 Fit & Competency 위주였습니다.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본 듯 합니다.

1. **면접관: Equity Research 상무 (30분 / 한국어 70% 영어 30%)**

골드만 삭스 서울지점 리서치 부서에서 섹터 애널리스트로 계신 상무님이랑 면접을 봤습니다. 간단히 Fit & Competency를 끝내고 바로 Technical한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.

* Valuation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?
* DCF analysis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라
* Comparable company analysis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라
* 각각의 장단점은?
* 본인은 absolute valuation을 선호하는가 relative valuation을 선호하는가? 그 이유는?
* 조선업의 Valuation은 어떻게 하는가? (헉;;;)
* Valuation에서 multiple은 어떻게 구하는가?
* EV가 뭔가? 어떻게 구하나? EV가 갖는 의미는?
* EBITDA와 PER에 관련된 질문..

이 외에도 재무관리와 회계관련 질문들이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. 조선업 valuation의 경우 컨설팅 케이스처럼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거의 패닉 상태인 제게 도움을 주시더군요. 진땀 나는 면접이었습니다. 면접을 준비하면서 재무관리 및 회계 내용을 복습하고 finance career bible을 본 게 도움이 되더군요.

1. **Valuation Test(필기시험 / 1시간 / 영어)**

내용: Financial ratio analysis (part I) 및 DCF analysis (part II)

**Second-round**

30분짜리 면접 3번 봤습니다.

1. **면접관 Equity Research상무 (30분 / 한국어 70%, 영어 30%)**

이쪽 industry에 대한 제 관심의 정도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물으셨습니다. KFAC 펀드 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으셨고요. 어떤 주식들을 들고 있었나?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가? 왜 그 종목을 샀나?등. Technical한 질문들은 회계 질문들을 하셨습니다.

* 배당금을 주게 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변하는가?
*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에서 손실이 나면 B/S와 I/S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?
* 회사는 배당금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?

이 외에도 1~2개 정도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

1. **면접관: Equity Research 부장 (30분 / 한국어 5%, 영어 95%)**

초반에 한국말로 간단하게 하고 이후 영어로 봤습니다. Fit & Competency 질문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technical 조금.

* Income Statement의 순서를 설명해보라
* Valuation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? 각각의 장단점은?
* B/S, I/S, Statement of Cash Flows의 차이 및 관계는?

1. **면접관: Equity Research 상무 (30분 / 한국어)**

이분은 제게 질문은 많이 하지 않으셨고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, 겪는 고충,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Technical한 질문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해주시는 형식이었습니다.

**Third-round**

1. **면접관 Equity Research상무 (30분 / 한국어 30%, 영어 70%)**

제 주식투자 경험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물어 보셨습니다. Fit & Competency 면접이라고 하기 힘든 상당한 압박감이 있는 면접이었습니다. Technical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(?) 한 종목에 대한 질문들… 제가 설명을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관련 질문을 하는 식.

*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 뭔가?
* 왜 그 종목을 샀는가? (뭐 하는 회사인가?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? 환율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?)
* 이유가 그러하면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는 어떤가?
* Valuation 해봤나?등등

질문들에 대한 제 답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표정이 좀 부드러워 지시더군요. 그 전에는 조금 굳은 표정으로 대하셔서 압박감이… 휴~

1. **면접관: Equity Research 부장? (30분 / 한국어)**

주로 Fit & Competency 위주였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. Technical한 질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.

* 회계에서 많이 쓰이는 표 3가지가 무엇인가?
* 기초, 기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간의 연결관계는 어떻게 되는가? 등등

1. **면접관: Equity Research Associate (30분 / 한국어)**

젊으신 분입니다. Fit & Competency 위주였고 미소로 대해 주셔서 편안하게 면접을 봤습니다.

**Fourth-round**

도쿄지점에서 리서치 센터장(일본인 전무)님이 서울지점으로 오셔서 그 분과 면접을 보고 이후에 전화로 새로 오시는 서울지점 리서치 센터장님과 면접을 봤습니다.

1. **면접관: Japan Equity Research 센터장 (Head of Korea-Japan Equity Research) (30분)**

생각보다 젊게 보이는 외모라 놀랐네요. 초반에 Fit & Competency 간단히 물어 보시다가 제 주식투자 경험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이 무엇이고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자세히 물으셨습니다. 회사의 주요 제품은 무엇이고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, 향후 발전 가능성은, 등등. Technical한 것은:

* Statement of Cash Flows가 무엇이고 작성과정을 설명해보라

1. **면접관: Korea Equity Research 센터장 (30분 / 한국어 30%, 영어70%)**

회의실에 남아서 Polycom으로 전화 면접을 봤습니다. 초반에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로 넘어 갔습니다.

* 당신이 어느 회사의 CEO이고 회사는 몇 년째 연속으로 사업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. 현재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신은 CEO로서 어떻게 할 건가?
* 당신이 애널리스트이고 내일이 당신이 커버하는 회사의 실적발표일이다. 무엇을 할 건가?
* ROE가 중요한 이유는?
* 전기 요금 산출에 관련된 수식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찾겠나?
* 99 곱하기 99는? 등